

## 4월 비정규직 근로자와 저신용등급자 신용대출 감소

정규직은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출액 전월대비 **2.23%** 감소

신용등급 **5**등급 이하도 대출액 규모 전반적으로 감소

작성 : 이왕재 부소장, 원인재 연구원

나라살림연구소 소장: 정창수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|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| <http://www.narasallim.net> | 336-0619

### 나라살림연구소, 2020년 4월 고용형태 및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분석

#### - 요약 -

- ❖ 나라살림연구소는 KCB(코리아크레딧뷰로)의 2020년 4월 20대 이상 개인 대출 현황데이터를 통해 고용형태 및 신용등급별 대출현황을 분석함.
- ❖ 분석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출 및 신용대출 규모 및 건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전월대비 감소했음.
- ❖ 또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 및 신용대출 규모 역시 전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- ❖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의 사람들이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 취업 및 소득 기준 등을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출 승인받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보임.

## 나라살림연구소-KCB 고용형태/신용등급 4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

나라살림연구소가 2020년 4월 기준 고용형태 및 신용등급별 대출 및 연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KCB(코리아크레딧뷰로)로부터 20대 이상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했다.

### 1. 4월 비정규직의 대출 및 신용대출 감소해

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출 및 신용대출 규모 및 건수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전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지난 3월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대출액은 3,924만원이었으나 4월 총 대출액은 3,975만원으로 전월대비 1.29% 상승했다.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대출액은 3월 기준 2,824만원에서 2,761만원으로 전월대비 2.23% 감소했다.

신용대출액 규모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감소했다.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기준 862만원에서 4월 876만원으로 1.62% 상승했지만,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같은 기간 394만원에서 381만원으로 3.44% 감소했다.

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출 규모뿐 아니라 대출건수도 감소했다. 정규직의 4월 1인당 대출건수는 1.12건으로 전월대비 1.62% 증가했지만,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1인당 대출건수는 0.9건으로 3월 대비 3.44% 감소했다.

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의 4월 1인당 신용대출 건수는 0.54건으로 전월대비 0.9% 증가했지만, 비정규직 근로자의 4월 1인당 신용대출 건수는 0.41건으로 2.79% 감소했다.

<표1> 20년 4월 기준 고용형태별 총대출액 및 신용대출액

(단위: 명, 천원)

| 구분   |    | 인구         | 총 대출액     |        | 신용 대출액   |        |
|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     |    |            | 1인당       | 전월 대비  | 1인당      | 전월 대비  |
| 평균   | 4월 | 46,984,095 | 34,555.38 | 0.08%  | 6,642.30 | 0.38%  |
| 정규직  | 3월 | 26,737,985 | 39,241.20 | 2.99%  | 8,623.72 | 4.04%  |
|      | 4월 | 26,886,149 | 39,746.53 | 1.29%  | 8,763.13 | 1.62%  |
| 비정규직 | 3월 | 20,043,877 | 28,241.25 | 2.94%  | 3,940.74 | 4.34%  |
|      | 4월 | 20,097,946 | 27,610.88 | -2.23% | 3,805.16 | -3.44% |

## 2. 낮은 신용등급의 대출액과 신용대출액도 낮아져

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의 대출액 및 신용대출액도 3월 대비 감소하고 있었다.

신용등급이 좋은 1-4등급의 총대출액과 신용대출금액은 대체적으로 전월대비 증가했다.

신용등급 1등급의 1인당 총대출액은 3월 3,037만원에서 4월 3,026만원으로 전월대비 0.36% 감소했지만 신용대출액은 전월대비 0.35% 상승했다.

신용등급 2등급의 총대출액은 전월대비 0.46%, 신용대출액은 전월대비 0.89% 상승했으며, 신용등급 3등급의 총대출액은 전월대비 0.53%, 신용대출액은 전월대비 0.74% 증가했다. 신용등급 4등급도 총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이 각각 전월대비 1.09%, 1.41% 증가했다.

반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5등급 부터는 총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이 전반적으로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. 신용등급 5등급의 4월 1인당 총대출액은 2,141만원으로 전월대비 0.09% 감소했으며, 같은기간 1인당 신용대출액은 329만원으로 전월대비 0.04% 감소했다.

신용등급 6등급의 경우 총대출액은 전월대비 1.59% 감소했으며, 신용대출액은 전월대비 1.26%감소했다. 신용등급 7등급의 신용대출액이 전월대비 0.64% 증가했지만 총대출액은 전월대비 0.12% 감소했으며, 신용등급 8등급과 9등급은 총대출액과 신용대출액 모두 3월과 비교해 감소하고 있었다.

<표2> 20년 4월 기준 신용등급별 총대출액 및 신용대출액

(단위: 명, 천원)

| 구분  |    | 인구         | 총 대출액     |        | 신용 대출액    |        |
|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    |    |            | 1인당       | 전월 대비  | 1인당       | 전월 대비  |
| 평균  | 4월 | 44,494,164 | 35,968.68 | 0.14%  | 6,884.40  | 0.43%  |
| 1등급 | 3월 | 8,167,744  | 30,365.96 | 1.01%  | 9,646.17  | 1.34%  |
|     | 4월 | 8,199,887  | 30,257.62 | -0.36% | 9,680.407 | 0.35%  |
| 2등급 | 3월 | 8,037,986  | 61,220.99 | 1.24%  | 9,937.45  | 2.65%  |
|     | 4월 | 8,071,439  | 61,500.48 | 0.46%  | 10,025.92 | 0.89%  |
| 3등급 | 3월 | 7,962,633  | 40,052.75 | 0.01%  | 6,104.06  | 1.32%  |
|     | 4월 | 7,986,527  | 40,263.48 | 0.53%  | 6,149.475 | 0.74%  |
| 4등급 | 3월 | 7,205,754  | 24,817.15 | 1.38%  | 3,708.93  | 2.92%  |
|     | 4월 | 7,212,691  | 25,087.94 | 1.09%  | 3,761.33  | 1.41%  |
| 5등급 | 3월 | 6,553,997  | 21,423.36 | 0.06%  | 3,293.14  | 1.34%  |
|     | 4월 | 6,618,361  | 21,404.98 | -0.09% | 3,291.981 | -0.04% |
| 6등급 | 3월 | 2,936,252  | 33,721.52 | 0.72%  | 5,948.76  | 1.60%  |
|     | 4월 | 2,975,029  | 33,183.91 | -1.59% | 5,873.716 | -1.26% |
| 7등급 | 3월 | 1,540,035  | 50,354.29 | -0.66% | 12,220.29 | 0.67%  |
|     | 4월 | 1,530,585  | 50,292.21 | -0.12% | 12,297.93 | 0.64%  |
| 8등급 | 3월 | 1,284,501  | 14,615.17 | -0.55% | 4,833.57  | 1.12%  |
|     | 4월 | 1,281,298  | 14,350.05 | -1.81% | 4,756.596 | -1.59% |
| 9등급 | 3월 | 617,271    | 28,722.04 | -0.16% | 9,123.18  | 0.60%  |
|     | 4월 | 618,347    | 28,496.77 | -0.78% | 9,043.45  | -0.87% |

\*신용대출 거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신용등급 10등급은 분석에서 제외함

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의 사람들이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 취업 및 소득 기준 등을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.

---

나라살림연구소 소장: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 
문의 : 이왕재 부소장 010-7379-7886  
E-mail :wangjaelee@gmail.com

---

---

‘나라살림브리핑’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입니다. 재정, 조세, 예산 관련 정부, 국회,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.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. [narasallim@gmail.com](mailto:narasallim@gmail.com)

---